

# 나는 하나님의 곁작품

[나누는 몇 마디 (2)]

제임스 김 나눔

## ‘나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 때  
'나 많이 힘들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또 버려야 할텐데 ...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 나눔

내 삶을 나눔에는 투명성과 정직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나눔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나눔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진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심지어 오해를 받고 상처를 입는다 할찌라도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나눔의 삶을 주님 안에서 즐기십시오.

## 나눔의 두 반응

말씀 묵상과 짧은 나눔의 글을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교회 웹사이트 외에 이 메일로도

여러 지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눔 가운데서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요약할 한다면 은혜를 받던지 아니면 시험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할 때 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무리들의 두 가지 반응이 생각났습니다. 그 두 그룹 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행 2:37, 7:54)

한 그룹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한 반면에(2:37-38)

다른 그룹은 설교를 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7:58-59).

성령의 감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를 때에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 나눔의 진실성

나눔의 진실성이  
오해를 받고 심지어 왜곡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 나눔의 진실성을 이해한다면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나를 신뢰하기가 힘들어졌다해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당신을 신뢰하기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 나는 목사인가 공모자인가?

교인들 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마음 속으로는 이미 재물을 우상화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물질의 축복 설교를 듣고 싶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대로 물질의 축복 설교를 할 때  
나는 더 이상 목사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또한 그들의 공모자가 된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란 책을 읽으면서)

## 나는 소모품 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대해준다 할지라도  
그의 의도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저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소모품 밖에 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다.

## 나는 어느 쪽인가?

나 자신이 너무나 힘들기에  
나는 당신의 힘든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혹은 ..

나는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나누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나는 어떠한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느끼는 사랑에 너무나 익숙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고난)을 통하여 경험하는 사랑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 나는 이런 목사님을 신뢰하며 존경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진실된 목사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목사님,  
가르치고 선포한 말씀대로 실천해 옮기고자 힘쓰는 목사님,  
나는 이런 목사님을 신뢰하며 존경합니다.

## 나는 직구, 주님은 변화구?

나는 직구를 던지고 싶은데  
주님은 변화구를 던지신다.

나는 지름길로 곧장 가고 싶은데  
주님은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신다  
(참고: 출애굽기 13 장 17-18 절).

변화 무쌍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나의 직구의 관점으로 다 이해할 수 있으랴.

##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God's masterpiece)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나는 ... 최소한 양심이 있는가?

나는 ... 최소한 양심이 있는가?

사람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목사로서.

## 나를 이해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 적어도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을 느끼지만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사랑보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 “나”만의 세계에서 탈피?

"나"만의 세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세계에도 관심을 갖고 알아갈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세계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마 22:37-39).

## “나쁜 그리스도인”

왜 당신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 나쁜 그리스도인 " 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하는데 ... ㅠ

잘못된 추측으로  
상대방을 의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텐데 ... ㅠ

**나서지 말고 묵묵히 지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조심해야 합니다.  
복잡한 일이면 일일수록  
하나님께 겸손히 믿음으로 다 맡기고  
좀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묵묵히 지켜보십시오.



##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되

성기기보다 성감을 받고 싶어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 나에게 필요한 믿음은 ...

나에게 필요한 믿음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요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믿고

인내하는 믿음이다.

(Mark D. Futato 교수님의 "The Book of Psalms" 주석을 읽으면서)

### 나의 강함, 나의 약점?

나의 강함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구나 ...

## 나의 뽕뽕이가 하나가 되어지길 ...

지금 내가 목회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사는 방식에  
어긋남이 없는 한결같은 일체의 삶이다.  
만일 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존재와 내가 하는 말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강하게 느낄 수만 있다면,  
만일 그들이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하므로  
말씀인격화되어 가는 삶을 엿볼 수만 있다면 ...  
나의 뽕뽕이가 하나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 나의 명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면 ...

나의 명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면  
나는 의심과 불신, 불순종과 불만족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불평, 원망만 하게 될 것이다.

## 나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뼈저리게 느끼곤 하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무기력함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같이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좀 뼈저리게 느끼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고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 나의 미련함

나의 미련함이 어디까지 인가 ....

## 나의 미련함은 ...

나의 미련함은 반복되는 내 기도의 결과,  
즉 내가 기도하고 기대한대로 되지않은  
결과를 통해서도 내가 얼마나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대로, 내 명철과 지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잘못 기도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하와의 불순종한 모습의 비취 볼 때 드는 몇가지 생각은,

1.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보는 것이다.

선악과가 보았적하다는 것은 이미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데서 시선이 멀어져 있다는 증거이다.

2. 듣지 말아야 할 사탄의 미혹의 말을 듣는 것이다.

아예 사탄의 말을 듣지도 말고 사탄과는 말을 섞지도 말아야 하는데 이미 생각의 영역에서 사탄의 거짓말과 섞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3.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과 멀어지고 '선악과'에 가까이 접근해 있으므로 나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고자 최악된 선택을 하면서도 그 최악된 선택의 큰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Lydia Brownback, LEGACY OF FAITH: From Women of the Bible to Women of Today"란 책을 읽으면서)

## 나의 사명

떡 다섯 덩어리를 떼어서 남자만 오천명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

##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록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순탄한 길을 걸어갈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욕심과 쾌락에 노예로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란 책을 읽으면서)

## 나의 생각과 사고

나의 생각은 성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의 사고는 하나님이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계시하신 모든 것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

나의 사고 과정은 성경에 계시에 의해서 나에게 전해진 것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

나는 성경에 계시된 말로 사고하고 기도해야 한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 나의 선행을 기록하지 말아야 ...

내 심비에 나의 선행을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그 목적은 내 마음에 공로 의식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직 내 심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더 깊이 새겨야 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는 오직 은혜 의식으로 가득차 있어야 한다.

그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더욱더 수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 나의 수치심보다 ...

나의 수치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기에

제 자신의 허물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 나의 슬픔도

나의 슬픔도 자신의 슬픔으로 삼으시는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 복음 성가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교회 새벽기도회에 오는 중에 들은 생각]

## 나의 신뢰심을 흔들어 놓는 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나의 신뢰심을 흔들어 놓는  
질투심에서 나오는  
상대방의 빼돌어진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 나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된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이  
나의 신앙 생활에 더 유익합니다.

## 나의 잘못, 상대방의 실수

나의 큰 "잘못"은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라는  
한 마디 없이 침묵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  
용납하지 않고  
뭐 그리 잘났다고 크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지 ... 꺄꺄

##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는 것은 ...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는 것은  
자기 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만한 지식을 가지고  
입술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그 나이 드신 어른을 보면  
'그래도 저 분에게는 그나마 배울점이 좀 있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드신 어른을 볼 때  
'나는 저분을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지식은 우리에게 지적인 배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분들의 인품과 덕망과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분들을 향하여 존경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 낙망과 심지어 절망 가운데서도 ...

낙망과 심지어 절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갈망하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 남남처럼 지내고 있는 식구?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식구가

남남처럼 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1. 그나마 같이 사는 이유는 집 안에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에 (집 안에 어르신마저 돌아가시면 뿔뿔히 흩어질 수 밖에?)
2. 남남과 같은 식구보다 친한 친구가 더 나올 수도 ..

## 남편에게 거는 기대?

부인 자매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신들의 남편이 자기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길 바라고 있을까 ...

## 남편의 설교, 아버지의 설교?

사랑하는 아버지의 임종 예배 때

사랑하는 남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꼭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말하는 사랑하는 아내 ...

## 남편의 침묵

"남편들이 침묵할수록 아내의 공유하며 확인하고 싶은 욕구는 더욱 가증된다.  
그리고 아내가 요구하면 할수록 남편은 더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아내들은 남편의 침묵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 못하고 아내들이 계속 공유하고 확인하고 싶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면  
그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더욱더 침묵하게 만들 것이다.

침묵도 남편들에게는 대화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아내들은 남편의 침묵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하여 의심과 불신을 들게 하긴 하지만 말이다.

아내들은 남편의 침묵 대화법을 배워야 한다.

## ‘낮게’가 아니라 ‘낮게’

자기 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깁니다(빌 2:3).

## 내 계획대로 안되었지만

내 실수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잘된 것을 보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내 기억력 감소에 감사하는 이유는 ...

내 기억력 감소에 감사하는 이유는  
그 때 그 때 적는 습관과  
미루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 내 기준과 내 기대에 못미친다고 ...

내 기준으로  
(성경적 기준이 아닌)  
내 기대에 못미친다고  
(주님의 기대가 아닌)  
내 마음에 불만족 속에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내 입술로 불평하고 또 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 내 뜻과 목적과 계획되로 안되었음을 감사

내 뜻과 목적과 계획되로 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서야 왜 그리 안되었는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되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내 마음에 심어준 귀한 사랑의 추억들 ...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  
내 마음에 심어준 귀한 사랑의 추억들,  
주님과 그 형제에게 감사하면서  
나 또한 그 형제가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랑처럼  
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 내 마음에 조급함을 경계하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믿자.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놀라 걱정 근심 가운데 마음이 조급해져서 성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자.  
내 마음에 조급함을 경계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이루어 질 것이다.  
내 수단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

## 내 마음의 기념비에 ...

내 마음의 기념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을 기록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자.

## 내 마음의 나눔이 수다꺼리가 된다 할찌라도 ...

내 마음의 나눔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다(gossip)꺼리가 되어  
내 귀에 들릴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심지어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교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Sharing is Caring"입니다.

## 내 마음이 이미 교만해졌다는 싸인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한 일만 보이고 있다면  
나의 마음은 이미 교만해 진 것이다.

##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control)하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우리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작음과 약함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메달리게 되고 부르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고 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며  
품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 내 상황의 주님

우리는 상황에 다스림을 받기보다  
그 상황의 주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DEAN R. ULRICH, "FROM FAMINE TO FULLNESS:  
THE GOSPEL ACCORDING TO RUTH"를 읽으면서)

## 내 신앙생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

내 신앙생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나의 불충분함(insufficiency)이 아니라  
나의 불충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충분하신(Sufficient)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ANTHONY T. SELVAGGIO, "FROM BONDAGE TO LIBERTY – THE GOSPEL ACCORDING TO MOSES"를 읽으면서]

## 내 신앙의 틈은?

우리 신앙의 틈을 조금만 보여도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유혹/미혹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내 신앙의 틈은 무엇인가?

## 내 이성

물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 지혜를 의지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되겠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젖어가는(saturate)  
내 이성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내 이웃을 그리 사랑해야 마땅한 것일진데 ...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된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 수록  
나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이웃을 그리 사랑해야 마땅한 것일진데 ...

## 내 인생에 3 개의 전환점

내 인생에 역전 드라마를 쓰시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3 개의 전환점을 주셨다:

1. 1987년 5월  
주님께서 교회 대학부 집회 때  
요한복음 6 장 1-15 절 말씀으로 나를 중생케 하시고 부르신 일
2. 1997년 4월  
주님께서 아내와 짝지어 주시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 일
3. 1998년 4월  
주님께서 첫째 아기 주영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사랑을 경험케 하신 일



## 내 책임이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본을  
내 아내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에,  
아내가 남편인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세 자녀들은  
아빠인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책임은 가장인 나에게 있다. ㄸ

##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저 관망하시는 것 같고 잠잠히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단련'과 "인내와 연단입니다(박윤선).  
또 다른 영적 유익은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한 인내를 통해서 연단, 즉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빛어집니다.

## 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 ...  
내가 지나치게 내 생각만 그 사람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은 나 자신을 뒤돌아 봐야겠다.

##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데 ...

거울 앞에 스면 내 모습 밖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 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있으니 ... ㅠㅠ

## 내가 변해야 한다.

지난 주 또 들은 (교역자 분)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는다.  
전에도 어르신 한 두 어분 목사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지난 주에 다른 분을 통하여 또 들었습니다.

오늘 운동하다가 든 생각입니다:  
만일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그것은 인간의 관점인지라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 이유는 목회자인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구나.

## 내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저 교회는 최고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  
이 교회는 별 볼이 없는 교회 같아 보여도  
그 교회가 말로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 제일 좋은 (적합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 내가 본 모습을 통해 받는 교훈

토요일, 교회에서 점심을 사려고 근처 음식점에 걸어가다가 흥미로운 모습을 보았다.  
그 흥미로운 모습이란 바로 휠체어를 탄 사람과  
그의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의 모습이였다.  
그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고  
휠체어를 탄 사람은 눈으로 앞을 볼수 있는 사람이였다.

나는 내가 본 이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고 있다.  
그 교훈이란 나는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었던 사람처럼 내 앞날을 볼수가 없다.  
그러나 내 주님은 휠체어에 타고 있었던 사람처럼  
충분히 내 앞날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할 일이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 내가 없으면 ...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손히 섬김에 있어서  
내가 없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는 장미꽃 향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장미꽃 가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

## 내가 원하는 위치 vs. 나에게 주어진 위치?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보다  
팀 전체의 관점을 가지고  
그 팀 안에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데 더 잘하는게 아닐까 ...?

##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진심으로 관심으로 갖고 던지는 따뜻한 한 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상대방은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큼 중요시 여기지 않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상대방은 내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중요시하는 것이 다를찌라도  
만일 주님 안에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서로의 다른점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또한 인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다면  
상대방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보다  
내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만을 더욱더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뢰의 관계를 형성치 못하게 만드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 수록  
내 입장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내면의 어두움?

마음 속에 꼭꼭 숨겨놓고 있었던 나의 어두운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으로 밝히 들춰진다는 것은  
심히 부끄럽고 충격적이며 괴로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의 어두움을 들춰내실 때  
우리는 겸손히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제거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 내적 변화

내적 변화가 없이는 외적 변경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다.

(Without inner transformation, outer changes are meaningless and useless.)

## 너 제임스야 신앙생활을 흉내도 잘 내는구나

사람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 식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못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도 잘 못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 마음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행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실은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듯 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까지도 받고 더 나아가서 존경까지도 받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칭찬을 받을 때에는 그들은 양심이 가책을 느끼며  
또한 마음으로 괴로워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그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에 가서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바른 신앙 생활을 흉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마 15:8).

## '너 탓' '내 탓'하는 사람은 ...

'너 탓'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 '너'의 허물만 봅니다.  
'내 탓'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허물만 바라봅니다.

## 너무 무리하면 안됩니다!

그 때 그 때  
필요한 만큼  
조금씩 조금씩  
무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가능성도 알 수가 없고  
자기 발전 및 진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리를 계속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깨질 수(break)가 있습니다.



## 너무 잘해주면 조심?

'어느 사람이 나를 너무 잘해주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신뢰를 얻어 사기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광주의 택시 운전사 아저씨의 말)

## 너무 현실적이면 ...

너무 현실적이면 회의적이기가 쉽다

(내가 나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너무 이상적이면 ...? ㅎㅎ

## 너무나 의존적인 사랑

너무나 의존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

큰 상실과 우울과 절망까지 맛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겔 16:30).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습니까?

##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비춰보지만

사람들 앞에서 교회생활하는 자는

사람들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므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말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요 16:2).

##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하고  
당신 안에 제일 나쁜 점들을 끌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

어쩌면 사랑하는 자매를 섬긴다는 것은  
그녀가 한발자국 내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녀에게 징검다리가 되는 것일 수도 ...

## 눈물과 두려움

피할 수 없는 눈물도 있지만  
필요한 두려움도 있는 듯 ...

## 눈물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벗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눈물을 제 마음 눈물의 병에 담았습니다.

## 눈물을 유익되게 해야 ...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을

나 자신에게 유익되게 해야 합니다.

##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헌신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 능동적으로 기도 수동적으로 기다림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능동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지길 수동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 능력있는 그리스도인 ...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은 ...

1.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2. 진실하며,
3. 불의한 이익을 미워합니다(출 18:21).

## 다 다른 것 만은 아닌 듯 ...

'나는 당신과 다를 뿐이야'라는 말도 맞을 때가 있겠지만  
'당신이 맞고 내가 틀립니다'라는 말도 맞을 때가 분명히 있는 듯 ...

## 다 밀어내고 싶어도

자존심이 깊이 상하여  
자신 주위에 모든 사람들(심지어 가족까지)  
밀어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밀어내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 다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

표현하는 사랑보다  
표현하지 않는 마음엔 둔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른 이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

부부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갈 때  
다른 이성으로 하여금 내 생각에 아예 침투하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 다름점의 조화

아내와 함께 살면 살 수록

나와 아내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저희 부부를 짝지어 주시사

서로의 다름점들을 어떻게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지를 더욱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다만 우리 부모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최선이 그들에게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아픔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사랑하기에 마음이 아프고 육신의 고통보다

뼈아픈 고통의 현실로 인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의 모습이요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 '당신의 낙은 무엇인가요?'

'너의 낙은 무엇이나?'

오늘 친구가 던진 질문입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오늘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웃는 것이

내 낙이라 말했습니다.

소소한 순간 순간의 일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낙을 누립니다.

## 당신의 목사님을 성숙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성숙하게 사랑하는 성도님은

목사님의 연약한 정보다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appreciate 하며 encourage 하며 또한 edify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성숙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연약한 점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잘해달라고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 후배하고 대화하면서

그 형제가 사랑하는 자기 목사님을 향한 마음을 엿보면서 든 생각임)



##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 당연한 것인데 ...

당연한 것인데 당연시 안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당연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

## 당연한 것처럼 ...

당연한 것처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됩니다.

##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주 싫어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대충대충 말하고 넘어가려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 덕분에 샌드백 된 남편? ㅎㅎ

저희 집은 불화는 아닌데  
실제로 많은 미국 사람들처럼 제 아내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오죽 했으면 제 아내가 저랑 같이 사는 20 여년 동안 공화당이었는데  
몇 달 전에 공식으로 민주당으로 바꿨답니다.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제가 힘들었습니다. ㅎㅎ  
그 이유는 아내가 대통령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저에게 ... ㅋㅋㅋ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그 때서부터 아내는 저에게 쏟아냈을 정도였습니다.  
하두 그래서 나중엔 제가 아내가 올 때면 제가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답니다 ㅎㅎㅎ  
지금은 아내가 많이 포기한 듯해요. ㅎㅎ  
약 20년 결혼 생활에 대통령 땀시 이런 일도 겪고 ... ㅎㅎ  
우리 남편들은 즐거운 맘으로 샌드백 역할을? ㅎㅎㅎ

(제가 결혼 전에는 책을 통해서 부부의 "성격 차이"나 "돈 문제"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다가 다른 부부들을 통해 부부의 "영적 차이"로인해서도  
부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 후에는  
충분히 "정치적 차이"로도 부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하).

## 대화 시간?

주님 안에서  
약 1시간 대화를 했어도  
10분 밖에 대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더 깊은 교제?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 더 나을텐데요 ...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그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그 일이 좋아서 즐기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하는게 더 나을텐데요 ...

## 더 두려운 것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매를 맞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  
참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가르침(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 더 이상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이상 조의 노예가 될까봐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더 중요한 것?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 더 큰 축복은 ...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더 큰 축복은 잘 배우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더욱 빛을 발하는 믿음

좋은 재료인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를 먹으면서 자라나고 있는 믿음은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나쁜 재료인 거짓된 교훈을 먹으면서 퇴보하고 있는 거짓된 믿음은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소멸됩니다.

더욱더 깊고 큰 은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록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깊고 큰 은혜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신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백속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를 크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크셨던 것처럼).  
그리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으며 욕심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 덕을 세우고자 하는 동기는 좋지만 ...

덕을 세우고자 하는 동기는 좋지만  
진실되지 못하게 너무나 포장하는 것은 좀 ... ㅠ

## 돈 보다

많은 돈 보다  
한 사람을 사랑해야 ...

##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 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추구하면  
하나님께서서는  
그 돈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Iain M. Duguid, "EZEKIEL" 주석을 읽으면서)

##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데 ...

돈을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자꾸만 쓰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 동역자의 사랑이 참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나누는 동역자의 사랑이 참 좋습니다.  
그 사랑은 저로 하여금 웃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저로 하여금 눈물난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저의 마음을 몽클하게 합니다.  
저는 그 동역자의 사랑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두 관계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이 두 관계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한다는 것은 균형을 잃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두 관계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나(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좋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계가 안좋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좋으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안좋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는 것은 “회복”(Restoration)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 두려움보다 경외심

죄를 범하고 있는 교회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기 보다

그 징벌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며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경외해야 합니다.

## 두려워 떨고 있을 때 ...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좀 붙잡아 주고

누군가가 나를 좀 이끌어 주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 두렵다!

목회자의 변질... 참 두렵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도 더 커지면서 목회자의 마음도 더 커지는 것 같다...

순수한 초심은 어디간데 없고 마음에 욕심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마음조차도 못 보고 있다. 마치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변질된 마음에서 나온 변질된 목회인 줄도 모르고 ...

두렵다!

## 둘 다 문제라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대충 넘어가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조그만 실수는 강하게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의 잘못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기의 조그만 실수도 강하게 자책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 듣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겠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겠다.

분명히 헌법에서 그리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헌법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관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확신을 좀 내려놓고

한번만 좀 자세히 헌법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잘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텐데 ...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귀가 부족하기에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기에 계속 우리 주장만 한다,

그것도 흥분해서. ㅠㅠ

## 들춰지고 가리워지는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춰지는 나의 죄가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사하시고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에

가리워지길 기원합니다.

## 따라오는 자는 …

따라오는 자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따라오는 자는 지도자의 말(지시?)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아니됩니다.

지나친 열정(열심)은 주로 지도자의 말에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주로 지도자의 말에 빼는 것 같습니다.

## 딱 걸린다는 것

어제 만남 속에서 집사님들 중 한 지체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졸리시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옵니다 ㅎㅎ

실제로 그 때 많이 졸려서 자꾸만 눈이 감기는 것을 뜨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ㅎㅎ

근데 딱걸린 겁니다 ㅎㅎ

저는 그게 좋습니다, 딱 걸리게요 ㅎㅎ

무슨 말이지 알겠어요? ㅎㅎ

## 딸에게 강화시키면 안됩니다.

엄마가 딸을 무척이나(?) 사랑하여

친구처럼 지내면서

할 말 못할 말을 잘 가리지 않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다 나눌 때에

엄마 자신은 자기 마음의 부정적인 면까지도

사랑하는 딸에게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